동아일보 - 1920. 05. 18/ 1면/ 1단

「假明人頭上에 一棒」과 儒敎의 眞髓 (二)

저자 미상

몬저 『假明人頭上에 一棒』 一篇의 主旨를 論할진대 『我癢에 人脚을 搔하고 己田으란 捨하고 人의 田을 耘하는』 弊風을 論難함에 在하니, 換言하면 朝鮮民族에도 半萬年 歷史가 有하야 爛熳한 固有의 文明이 잇스며, 東亞에 雄飛한 時代가 有하거날, 오즉 一部 朝鮮의 儒學者는 外國 文化에 心醉한 結果 自己 民族의 文化는 度外視하야, 그 發達을 期치 아니하며 自己 文化에 基本한 後 外國 文化를 輸入하야 綜合文明을 創造하는 態度와 方針을 取하지 아니하고, 다못 事大的으로 外國 文化를 模倣함을 痛歎함이며, 아울너 自己 民族의 尊嚴한 權威와 精神이 墮落하야 他民族의게 叩頭 唯事함을 論擊함이니, 이는 實노 朝鮮 江山에 朝鮮人의 獨特한 文化를 萬善 綜合 中에 創造 樹立하야써, 그 生存의 價値를 天下에 發揮하며 世界 文明에 貢獻코자 하는 新 朝鮮靑年의 正當한 要求오 主張이라. 더욱 朝鮮 古代 先祖의 生活을 硏究하야, 그 中에 一大 文化와 榮光을 發見하야써 朝鮮 現代 民衆의게 그 文化 成就에 對한 自信과 將來 發達에 對한 希望을 주는 朝鮮 歷史家와 朝鮮語 硏究者에 在하야 엇지 熱熱한 그 主張이 自然하다 하지 안으리오. 이제 本文을 引用하야 上述한 바 余의 解釋을 證明할진대

一. 論鋒의 對象 『二十世紀 이 時代를 이야말노 호랑이 담배먹을 時節로 알아 天動벌거승이의 짓을 하는 者 잇스니 가로데 누구뇨? 我癢에 人脚을 搔하고 己田으란 捨하고 人의 田을 耘하는 좀 詳言하면 楊州밥 먹고 高陽 구슬하는 一部 儒學者 그분네러라.』하엿스니, 첫지 執筆者가 論鋒을 向하는 相對者는 儒學者 곳 사람을 가라침이오. 儒學 그 敎 自體를 가라침은 아니며, 또한 儒學者 全體를 指함이 아니오 다만 弊風을 未免하는 一部를 가라침이니, 『이곳 朝鮮의 特産인 儒學者 더욱 朱子學派의 儒學者 其中에도 大明義理의 一派 學者라.』함을 볼지라도 學者오 學이 아니며, 一派오 全體가 아님을 可히 알지로다. 勿論 大明義理學派가 果然 我癢에 人脚을 搔하는 與否는 各人 觀衆에 委할 것이며 後段에 論述할 터이나, 이에는 다못 執筆者의 相對者를 밝히노라.

二. 論旨 '一' 그네들의 恒用하는 말에 忠孝니 春秋義理니 하는 말이 잇도다. 그리하야 그들은 어버이에게 孝하고 님금에게 忠하며, 身骨이 粉碎될지라도 義아니면 屈치 아니 하야, 그들의 입에서는『남이 한다 하고 義 아니어던 좃지마라.』가 나오고, 南漢의 녯일을 생각하야『先輩有光爭日月하되 後人無地讀春秋라 하얏도다.』하고, 그 代表者를 史上에 求하야 갈아대『木島의 燒殺을 當하던 朴堤上으로부터 此鐵이 冷하니 更灼來하라 하던 六臣도 其人이오, 嬉嬪 張氏의 事에 斷節질을 當하던 朴定齋 其人까지 未嘗不 首를 俯하고 울어러야만할 그런 분이 적지 아니 하얏도다.』한 後, 此身이 一百番 죽을지라도 올흔 뜻이야 고치며 먹은 맘이야 밧구랴.『이몸이 똥개천에 가 써터질지언정 그는 아니해』 이것이라.』 하얏스니, 儒學者의 尊崇하는 □아니라 全人類가 尊崇하는 萬邦의 大道忠孝義理를 執筆者나 또는 누구나 敢히 批難하며 嘲笑하리오.『俯首仰歎』하는 바ㅣ 아니뇨? 오즉 痛憤히 녁이는 바는『이 主義를 그 땅과 그 몸동이에 쓰지 아니하고, 옴겨다가 皮肉 不關한 다른 몸에게 다가들어 밧치』는 것이니, 吾人은 이에 至하야 讀者 諸君의게 從容히 뭇노라.『이 吾人의 痛歎할 바 아니며『그 더러운 속알머리야 참으로 개도 아니 먹을 것이 아니냐』하고. 噫라! 執筆者는 更論하기를『春秋義理가 무엇인고? 나는 이러케 解釋하노라. 첫재, 是非를 가르는 것이며, 또한 人我를 區別하는 것이며, 더욱 저를 自尊하는 것이라.』하얏도다. 大槪 自尊은 自慢이 아니라 곳 그 人格의 尊大 貴重함을 覺하야 自敬 自愼함이니, 이 道德의 根本이라. 自尊이 업시 엇지 恥를 知하며 無恥에 엇지 無所不爲가 업스리오. 自卑自屈과 自暴自棄는 故로 聖人도 棄之하시나니라. 然則 道德의 純粹와 將來의 發達은 오즉 自尊에 잇스며, 道德은 元來 自他의 關係를 規律하는 것이라. 然則 人我의 區別이 업시 엇지 道德이 成立이 되리오. 道德은 오즉 我에 固有한 權을 尊重하며 同時에 他에 屬한 權을 正堂히 認定함에 在하나니, 故로 道德은 國家의 基礎에 社會의 規範이며 法律의 源泉이라 하는지라. 이제 人我의 區別이 無하야 오즉 他에 服從하면 그 무슨 사람이라 하리오. 오즉 物件의 一種 奴隸에 不過하나니, 然則 道德의 根本은 또한 人我 區別을 正當히 認定함에 在하다 할지라. 人我의 區別 업시 무슨 是非가 잇스리오. 道德의 是非는 我의 正當함과 人의 不當한 與否를 辨別하는 것이 아니뇨. 故로 道德은 人我의 關係와 區別을 正當히 認定하며 行함에 在하다 하나니, 이 大理어날 이제 朝鮮 在來의 弊風을 볼진대,『첫재』 文字나 言語上으로 보면『그네는『어버이시어!』할 것을『父母시어!』라 쓰며 말하고,『아이고, 압하!』할 것을『嗚呼痛哉라!』 하여야 滿足하얏스며, 漢文은 眞書오 朝鮮文은 諺文이라 自賤하야왓스니, 이 公小한 地位에 立하야 엇지 一部 儒學者의 弊風이 아니

라 하며,『둘재』그 思想을 볼진대 眞實노 그네들의게는『白頭山보다 泰山이 놉흐며 淸川江보다 涇水가 아름답지』아니 하엿는가?『願生高麗國을 부르는 代身에 家在江南人牧之를 을프니『첫재』그 結果는 如何하뇨.『檀朝의 神政이 아모리 赫赫한들 누구나 讚辭 하나 들이며, 扶餘의 至治가 아모리 燦燦한들 누구나 一瞥의 時間을 별으며, 三國의 文藝가 萬丈의 光輝가 잇슨들 何等의 價値를 언나뇨. 後無의 盛時인 南北朝는 名字조차 無有하고 渤海의 繼體인 女眞은 宋史의 一葉에 傍註되엇스며, 高麗의 磁器는 古物商의 싸구료 品에 지나지 못하며, 文明化인 正音이 下級社會의 작난 件이 되지 안앗는가..... 書記留記가 다시 나지 아니하고, 漢武帝ㅣ討滅之하시고 하는 奴隸的 文字가 무덕이로 쏘다지지 안이 하얏는가.』

이와 갓치 하야 朝鮮人은『通鑑』과『史略』에는 能通하되『東國史記』는 아지 못하며, 朝鮮 文字는 諺文으로 墮落하야 價値를 發揮치 못하되 漢文은 眞書로 社會에 橫行하야 朝鮮文化는 實로 支那文化로 變하얏스며, 朝鮮民族은 東夷라 自卑하고 오즉 支那만 中華라 尊崇하게 되얏스니, 設想 中華는 地理上 名稱이 아니오 文化上 槪念이라 한들 그 엇지 自己 民族의 文化에 立脚하야 外國 文化를 綜合하야써 獨特한 文明을 樹立할 者의 穩當한 態度라 할 수 잇스리오. 然則 余는 이에 우리 朝鮮 父兄과 靑年의게 告하노라.『假明人頭上에 一棒』은 그 本旨-이와 갓흔 朝鮮 在來의 沒常識한 弊風을 論破함이오, 또한 新聞社 同一한 主旨로 此를 揭載하얏스니 願컨대 耳를 傾하며 心을 洗하야 虛心坦懷로 聽之하신 後 自取自裁하시기를.

三. 表現方法 吾人은 以上에도 論하얏거니와 論難攻擊과 批難의 態度는 반드시 君子의 態度를 取하야 禮를 守하여야 할지니, 威壓하거나 汚辱하거나 嘲笑하거나 奮擊함이 不可한지라. 이제 執筆者의 아름다운 主旨를 表現한 그 方法을 論할진대 (一) 相對者에 對하야 不愼한 態度가 有하며, (二) 짜라 立論前提에 作亂件이라 宣明하야 嘲笑의 疑를 受하며, (三) 聖人의 諱를 直書하며, (四) 例證을 擧함에 不敬함이 有하도다.

(一) 不愼한 態度를 本文을 引用하야 論할진대『眼明한 者로 盲人을 戱弄함이 엇지 작난이 아니며, 耳完한 者로 聾者를 對敵함이 엇지 작난이 아니랴. 나의 只今 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작난이라.』하얏스니, 이는 相對者를 盲人聾者로 認定함이라. 勿論 그 本意 반드시 無知沒覺한 者라 함이 아니오 文勢를 强케 하고자 하야 함일 것이로되, 이 正當한 論評의 法이 아니라. 論評의 法은 오즉 義理를 擧하야 諄諄然히 說破할 것이어날 萬一 相對者를 盲人聾者로 認定하면 그 엇지 듯기 조아하리오. 孔夫子 일즉이 갈아사대『吾-有知乎哉아 無知也-로라. 有鄙夫-問於我호대 空空如也-라도 我-叩其兩端而

竭焉하노라.』하섯도다. 筆者는 人格이 溫恭雅淡한 好靑年이라. 그 本意 엇지 自慢自高하야 不愼한 態度를 取하얏스리오. 오즉 不注意에서 出함인 줄로 思하나 그러나 何如間 不愼은 不愼이로다.

其他에도 激烈한 文字가 有하니『冠紳한 盜賊놈의 巢窟』,『鬼魁의 勢』,『進化의 魍魎』,『玉樞經』,『頑惡한 대가리』等 이곳이라.

(二) 立論初頭에 작난 件으로 論說함을 表示함은 讀者로 하야금 筆者의 純實함을 疑케 하는 弊가 有하며, 其本旨의 威權을 失할 虞가 有할 뿐 아니라 相對者로 하야금 嘲笑를 受하는 것 갓흔 反感을 抱케 하나니, 이는 不察이라. 그 本意 勿論 작난으로 함이 아니오, 오즉 文勢의 抑揚을 善히 하고자 함에 出한 것일 것이로되 또한 鎭重正大하지 못하도다.

(三) 孔子는 天下의 聖人이라. 吾人의 文化 道德은 末流에 至하야 設或 弊端은 잇다 할지라도 그 德澤과 恩惠에 比하야 可히 輕重을 問할 수 업스니, 그 本源은 孔子의 至極한 人格으로부터 流함이라. 故로 東洋 萬民은 宗敎의 殊別을 不問하고 共히 慕仰하나, 이 더욱 朝鮮은 在來에 孔子敎를 國敎로 確立하야 人心을 陶冶한 結果 勿論老幼하고 習慣上 그 諱를 直稱함이 無한지라. 이 善良한 風俗이라. 理由업시 이 風俗에 反함은 또한 過失이라 할지니 勿論 筆者의 本意는 孔子를 尊崇치 아니함은 아니오, 오즉 公平히 學術的으로 論評할 時에서 師弟와 恩惠의 關係를 離하야 絶對超越한 學者의 地位로서 그 諱를 直書함일 것이로되, 一般 民衆은 그러하게 認定치 아니하니 또한 過失은 過失이라.

(四) 例를 擧하는 中 春秋를 民族 自尊心 鼓吹의 書라 함이 果然 適當할는지 이는 學術上 疑問에 屬할 바오.

또 日本學者의 討論을 引用하얏스되『日本이 儒敎를 遵奉하니 만일 孔子가 元帥가 되고, 七十弟子를 다리고 支那의 四萬萬 무리를 거나려 日本을 侵犯한다 하면 엇지할가?』함에 對하야 한 日本 有名한 學者의 答辯을 擧하얏스니, 이 例는 勿論 聖人에게 對하야 絶對로 不可한 例며 또 禮를 失한 假說이라. 孔子 엇지 人의 國을 兵力으로 侵犯하리오. 그러나 本意 오즉 儒敎의 忠孝義理는 國家 社稷을 死守함에 在하다 함을 밝히고자 함에 잇스며, 執筆者 그 討論을 引用함은 文化는 外國에서 輸入하야 設想 萬善綜合의 度量을 有한다 할지라도, 自己의 權威와 精神은 固守하여야 할 것을 論함이니, 決코 孔子를 排斥함도 아니오, 敢히 不敬한 態度를 取코자 함도 아니라. 그러나 禮를 失한 例와 不敬한 例를 그대로 引用함은 그 本意는 何如間 一大 過失이라 하노라.

孔子를 享하는 舘校는 關羽廟나 萬東廟와 同一한 義가 아니라. 孔子의 出

生地는 何如間 그 人格은 萬人의 師表오 敎理는 萬人의 規範이오, 더욱 在來朝鮮에 在하야는 國敎의 敎主인즉 崇拜의 儀式을 擧함이 當然하며, 또한 舘校는 一種의 學校라. 勿論 現代에 適合한 學校며 敎授法이냐 함은 後段에 論하려니와 何如間 古代式 學校인즉, 그 內容의 現代에 適不適을 論함은 可하거니와 그 存在 그것을 直히 否認하는 것 갓흔 語氣를 出함은 不可하다 하노라.

萬東廟 祭祀의 本意는 勿論 報恩之道라 하나, 그러나 그 適不適 더욱 現時에 在하야의 當不當은 余의 不知하는 바라. 報恩의 道면 祭祀 以外에 別로히 道가 有하지 안이할가? 況且 虛名下에 諸般 弊害가 有함이리오! 이는 執筆者의 本意에 對하야 充分히 諒解할 바라 하노라.

如此한즉『假明人頭上에 一棒』은 그 主旨 表現方法에 在하야 一大 過失이 有함이 分明하도다.

噫라! 吾人이 이에『假明人頭上에 一棒』에 對하야 累累히 說함이 엇지 그 不美한 點을 剔抉하며, 그 美한 點을 稱揚하야 스사로 깃버하며, 스사로 責을 免하랴 함이리오. 執筆者의 過失은 오즉 그 個人의 過失이라. 이를 一般讀者의게 紹介함에 對하야는 吾人은 決코 그 責任은 回避코자 아니하노라.

(未完)